

建築 3團體의 통합을 바라며

金武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요즘 우리 주변은 너무나 어수선한 분위기다.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잃고 혼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업계에도 국내외적으로 휘몰아 치는 변화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갑자기 밀어 닦힌 인력난과 이에 따른 급격한 임금인상, 아직도 용역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부족, 세계상의 과도한 세율,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각종 제도적인 장치 등, 우리들이 풀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 요즘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국제적인 정세에 의하여 우리 업계뿐 아니라 전 국토가 벌집 쑤서 놓은 것같이 소란하다. 국내의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종합면허제도를 시행해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불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치 우리의 입장은 넓은 바다에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일엽편주와 같은 신세이다.

아직도 대다수가 영세성을 탈피 못한 우리의 경영실태인지라 이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분명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우려가 높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진행되어질 이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대책과 비전이 없다. 단지 이 거대한 흐름을 일단은 응집된 우리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호소로 저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이어 지방자치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것도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리게 할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제도이기에 서로의 아집과 이해관계로 자칫 지방간의 반목과 불신의 와중으로 돌입할 우려도 있다. 차체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결집된 강한 힘과 조직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되기에 우리들의 단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기하여 보기로 한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업계에는

건축사협회 · 건축가협회 · 건축학회라는 3개의 단체가 병존하고 있다. 이 기구들은 아주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축학회를 제외하고는 실상은 대동소이한 조직과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잠시 이 기구들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건축학회는 모든 건축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교직에 있는 회원들이 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연구활동에 치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건축가협회는 회원의 자격은 비교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이 기구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순수한 건축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능력이 결핍되어 실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들만의 제한된 활동기구인 것이라 우선 경제능력이 다른 앞의 두 단체보다 안정돼 있다. 법의 특별한 보호하러 나름대로 상당한 권한도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협회 조직도 방대하며 건축사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일들을 주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살림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예산운영에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축사들의 사무실운영 문제와 결부되어 오히려 협회 운영에 적극성이 결여되기가 십상이다.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여 보자. 현재의 이 3단체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커다란 하나의 기구에 흡수하여 운영하는 통합된 기구를 구성하여 보면 어떨까? 물론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제도적, 법적인 구속을 받아야 되는 현행 규정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지가 수반되면 가능한 일이긴 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보자!

유사한 위원회 조직은 서로 통폐합하여 하나의 기구에 편입하고 현재의 3단체는 존속시키되 분명한 특성을 갖도록 재편성되어야 하고 이를 통괄하여 관장하는 통합기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연구활동, 조사업무 등은 학회기능에서, 순수한 창작활동의 지원과 계획은 가협회 기능에서, 건축사들의 권익 옹호와 각종 규정과 제도에 대한 심의 검토는 사협회기능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활동을 분담하고 이를 지원하는 예산 각출은 대국적 견지에서 회원의 회비와 사협회기능에서 전용하여 사용한다. 회장단은 3단체를 통괄하는 통합기구에만 둔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발상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상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동일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심지어 이 위원회, 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

협회 운영은 관심있는 몇몇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하여 그래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많은 회원들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비판적 입장에서만 협회를 질타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인적구성이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이만한 규모의 단체도 그리 많지도 않다. 그러나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응집된 힘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문제에 봉착 할 때마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만족할 만하게 해결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3개의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강력하게 관철시키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의 주도과 제도에 묶여 일방적으로 유도되고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들의 자질, 건축주와의 특수한 관계, 사소한 목전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부족과 의식구조상의 문제, 문화적인 구조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 아직은 많은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지만 우리의 시각을 이제는 보다 관점을 달리하여 안에서의 것으로부터 밖으로의 것으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우리가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업무의 일부를 침식당하여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포기당한 쓰라린 체험도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우리 3단체가 앞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할 사업목표 및 협회성격의 방향설정일 것이다. 우리 협회들이 단순한 친목단체 기구로 존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직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권익보호와 제반 국가시책과 연관된 각종 정책에 가담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여하튼간에 현재 협회의 위원회는 조직 구성에만 그치고 있어 그 활동력은 미미한 경우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협회가 상당한 공신력을 갖고 건축사의 권익과 우리가 처한 사회의 건축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건축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설계에 종사하는 기능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극단적으로 가협회는 건축가가, 사협회는 건축사가, 학회는 교수들의 모임 집단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특히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금까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잡부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협회 조직이 팽창되면 이에 대한 소요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회기능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외침도 있음을 유의하여야겠다. 그리고 협회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있거나 교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대부분이다. 물론 열성을 갖고 일에 임하면 되겠지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들을 지녔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이 탁상공론에 그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시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함을 인정하여야 한다. 힘있고 잘 정돈된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저런 모든 일들이 우리 업무와 연관된 조직의 특수성에도 기인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3단체의 통합 운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면한 우리들의 것이기에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는 머물러 있던 껍질 속에서 뛰쳐나가는 용기와 아픔을 각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회는 땀흘려 일한 만큼의 수고한 대가에 조그만 희생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의 어느 간섭도 배제한 순수한 우리들만의 단합과 노력의 결정체인 협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너무나 답답하고 욕구불만에 차있던 나 스스로이기에 이와같이 한번 소리쳐본다.